

중으로써 종오리의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여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이 그린음악시스템은 130년전 종의 기원을 쓴 찰스다윈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농진청 이완주박사팀이 연구해 이미 94년부터 작물분야에 실용화 보급된 기술로 작물성장, 병충해 예방 등 생산성 효과가 입증된 기술이다.

미르네 부화장은 이 시설로 종오리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란율이 약5%내외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화기내에 설치된 경보시스템은 부화기내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와 관리자 숙소에 경보음이 울려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한 시스템으로 부화기 고장에 의한 손실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신 제품 안내

### 오리전용 발효사료

(주)한국단미사료는 최근 오리전용 발효사료 및 양돈용 후기발효사료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 오리전용 발효사료 제품은 초생추 입식후 2주부터 출하때 까지 급여 할수 있고 기호성이 뛰어나며 불포화지방산과 육질을 높이는 특징점이 있다. 또 육질개선, 질병감소, 사료효율증진, 분뇨의 악취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오리사육농가의 사료비절감,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오리전용 발효사료는 당협회 장규호 고문이 운영중인 서우농산이 기존 발효사료 공장을 이회사로 이전해 한국단미사료가 가지고 있는 단미사료 공장시설과 합작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써 기존 서우농산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부분이 크게 보완돼 오리사육농가의 요구를 크게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료의 성분함량은 조단백 16% 이상, 조섬유 3%이상, 조회분8%이하, 조지방5%이상, 수분35% 이하이다.